

[목회실에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허 건 목사

9년 조금 넘게 섬겼던 와싱턴인교회 사역을 마무리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때가 되니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합니다. 9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인 듯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들도 있었고,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망과 실패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설치며 몇 일 동안 고민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다사다난한 여정 속에서 와싱턴인교회는 제가 의지 할 수 있고 용기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사랑의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Lewis 감독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찍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이해해주시고 양해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Lynchburg District에 속한 Mead Memorial UMC 담임목사로 파송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 하실지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난 9년간 와싱턴인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하고 배운대로 기도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라는 복음성가(예수전도단) 제목과 가사처럼 기대하고, 기도하며,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역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와싱턴인교회에서 계속해서 행하실 귀하고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내년 Annual Conference 에서 뵈는 때 전해 주실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을 세우는 제자 공동체’인 와싱턴인교회가 계속해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훈련시키며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도전 속에서도 세상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9년 동안 나누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와싱턴인교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 합니다.